

## 도서발굴단 추천도서

지난달,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?  
#천사소녀답정너 #디카페인유자차 #아무진세미집순이 #특이점이온걸바속속이 추천합니다.

글. 고양시도서관센터

### 도서발굴단이란?

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.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 
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.  
<https://m.post.naver.com/my.nhn?memberNo=22522629>



### #1

####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



이슬아남궁인 | 문학동네

책을 읽으며 어렸을 적, 친구와 주고받았던 교환일기장이 생각났다. 한 페이지를 뽁뽁하게 써서 주고받으면 그 친구와 더 특별한 사이가 된 기분이었다. 편지의 매력이 이런 게 아닐까 싶다.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어 상대방도, 나도 특별해지는 기분. 티격태격하는 유쾌함 속에 역시나 명문장을 남기는 두 사람.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이 책을 추천해본다. #천사소녀답정너

#### 책속한줄

“우리 사이엔 늘 오해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테죠. 언젠가 선생님이 쓰셨듯. 우리는 대체로 패배하고 가끔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패배로 돌아올 것입니다. 서로를 모르니까요. 오해는 흔하고 이해는 희귀하니까요”

### #2

#### 아버지에게 갔었어



신경숙 | 창비

책 속의 아버지는 넷째 딸인 주인공보다 장남이 중요하고,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인물이다. 말수가 적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면밀히 알 수 없지만 무덤덤하게 드러나는 행동에서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자란다. 이 세상에는 자상한 아버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지만, 모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을까. #디카페인유자차

#### 책속한줄

“생각을 하지 말자, 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더 생각할 게 없을 때까지 생각을 하는 수밖에 길이 없다.”

### #3

#### 완전한 행복



정유정 | 은행나무

이 책은 드라마 뒷이야기가 궁금해 다음 화를 누르는 것 마냥 잘 시간을 이미 넘긴 상황에도 책장을 마구 넘기게 된다는 후기들이 흥미 없던 이도 읽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한다. 악에 반친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, 과거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기에 과하다는 마음만 한가득 가지고 읽었다. 섬뜩하고 흡입력 있는 이야기에 집중하며 내가 정의하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밤을 보낸 나날들이었다. #아무진세미집순이

#### 책속한줄

“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.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. 다만 늘 기억해야 한다. 우리에게 행복할 권리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.”

### #4

#### 퀘도의 밖에서, 나의 룸메이트에게



전삼혜 | 문학동네

달에 글씨를 쓰는 회사 '체네시스'가 모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로, 끊어지지 않을 어떤 감정을 순간 포착한다.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SF를 읽으며 지구에서 흔들리는 별을 바라보는 것 말고 어느새 우주에서 흔들리는 지구를 바라보게 된다. 다른 상상력으로 나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희미하되, 이 세상의 마지막 미소를 머금고 아껴 먹듯 아껴 읽었다. #특이점이온걸바속속

#### 책속한줄

“몰랐더라면, 아니 이 모든 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. 지금이야 알게 된 것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. 내가, 그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.”